

보시는 아무나 하나고요? 마음만 내면 됩니다

전북불교대학 류성근 전법사회장

전북불교대학 전법사회 류성근(법명 대오) 회장은 일요일만 되면 모든 개인 업무를 중단하고 '5분 대기조'가 된다. 전법사회가 운영하는 2개의 군포교 법회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해서다. 매주 전법사 회원들의 군포회 준비 상황을 일일이 챙기건만 갑작스런 일로 법사가 참석하지 못하면 류 회장이 긴급히 출동한다.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 법회에 나오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법사가 없어 허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류 회장의 군 포교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음의 군 법당에서 법사가 부족해 법회가 끊어지곤 했었다. 류 회장은

를 울리며 "불공은 스님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려야 한다"는 신행관을 세우고 '독경염불의 생활화'를 주장했다.

류 회장은 이렇게 다져진 신행을 사회에 회향하기 위해 경전독송회를 조직해 염불봉사활동을 펼쳤다. 그 시작이 바로 군경묘지 경전독송이다. 처음엔 군경묘지 관리인과 주위로부터 애곡된 시선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독경활동에 지금은 격려를 받고 있다.

불자들의 독경 생활화를 위해 <경전독송집>을 발행하기도 한 류 회장은 상가(喪家)의 장엄염불 봉사도 빠뜨리지 않는다.

"금강경 사구계 만 알려줘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움직일 힘만 있다면 변화뿐 아니라 독경을 원하는 이들을 찾아 어디든 갈 것입니다."

전주=이준엽 기자

4월 29일 금요일,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대광맹인불자회 법당에 모인 40여명의 시각장애불자 사이로 6~7명의 연꽃봉사단원이 저녁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상을 펴고, 국을 나르고, 수저를 놓고, 손발이 적적 잘 맞는다.

연꽃봉사단(단장 김갑선은 91년 대광맹인불자회가 발족한 이후 1992년부터 단원을 모집해 94년에 창단했다. 회원은 60여명. 이 중 10년 이상 활동한 가족 같은 단원은 30여명이다. 그러나 무슨 행사든 눈빛 하나라도 취척 통한다.

권정남, 김은영씨는 매주 법회내용을 녹음해 시각장애불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우현숙씨는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직장 때문에 바쁜 남자 단원들은 법당 관리와 대외업무를 처리한다. 매주

대구 연꽃봉사단

금요일 정기법회는 당번을 정하지 않아도 공양 준비와 법회진행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연꽃봉사단의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한 달간의 행사준비를 논의하고 신규단원 교육도 한다.

연꽃봉사단원이 가져야 할 큰 덕목은 자타불이(自他不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정은 절대 금물. 연꽃 봉사단원들은 돕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덕목중의 하나가 객관성이다. 시각장애불자들의 눈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감정을 내

일요일엔 군포교 '5분 대기조'

군포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직접 준비해 군 법당을 찾았다. 지금도 유행하는 유머를 법문에 활용할 정도로 열성을 다하고 있다.

류 회장은 매일 오후 18일이면 경전독송회원 10여명과 전주 군경묘지를 찾아 구락왕생을 발원한다. 추위와 장마에도 단 한번 빠지지 않고 올해로 9년째 이어오고 있다.

"불교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전북불교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너무 좋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껏 좋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신심을 돈독히 하기위해 불교대학 법당에서 새벽예불을 시작했다는 류 회장은 매일 부처님 전에 예



더불어 사는 기쁨 배워갑니다

려놓는 하심(下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미정(42세)은 "저는 시각장애 불자들의 눈이 돼 주고, 그들은 제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니 서로 나누며 살고 있는 셈"이라며 활짝 웃는다.

중환자인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법당청소를 빠뜨리지 않는 한 단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밝은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답을 허물면서 오히려 행복과 기쁨,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는 연꽃봉사단은 모든 불자들의 동참과 실천을 적극 권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미술치료사 권윤희 씨

"내가 가진 전문 능력을 활용해 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봉사는 오히려 제 전문지식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 사례들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배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미술치료사인 권윤희(34세)씨는 지난해 8월 우연한 기회에 옹호복지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맡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또한 영진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봉사를 하고 있고 학교 부직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봉사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공부해 새봄에 시작한 권씨에겐 월·화·금요일 3일의 봉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성 나눌수록 더욱 커져요

그러나 봉사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심리상담 공부를 결심할 정도로 봉사는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 버렸다.

4월 29일 옹호복지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주의를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명진이(가명, 초등5)와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그 과정을 녹음했다. 신난한 명진이를 통제하기 보다는 그림으로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분노, 슬픔을 표출하게 하는 것이 권 씨의 주된 역할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 그 수업을 분석하고 명진이의 장애를 줄여줄 수 있는 연구를 거듭한다.

"미술치료로 장애를 완치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전 전문성에 보태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 대상자들의 마음을 수용하고 감싸 안아 주려고 해요."

권씨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 찾은 곳은 감로사.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힘들 때마다 감로사 예불에 참여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그 시간은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

권씨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도 경로를 몰라 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찰, 복지관 혹은 중단 차원에서 전문인력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관이 서로 전문가 리스트를 공유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는 봉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느끼게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4월 26일 10여명의 보살들이 모여 연임을 꾀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준비로 여념이 없는 인천 서광사(주지 경봉)를 찾았다.

서광사에서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108시공(施供)'. 자신의 월수입에서 108분의 1씩을 모아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다. 소득의 일부분을 떼내서 시주한다는 것이 교회의 실익조각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지 경봉 스님은 꾸준히 신도들을 설득했고, 신도들도 차츰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도회장 정인순(57·월정심)씨는 "처음엔 108시공의 진정한

인천 서광사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문화복지사업을 벌이겠다는 스님의 뜻을 심부 이해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동참하고 주위에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108시공으로 모인 돈은 전액 문화복지사업에 쓰일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108시공의 기금 조성 내역은 법당과 중무소 등에 공개되어 신도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 1년에 300~400만원 정도가 모이지만 매달 1만~10만원씩 모으는 신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다.

108시공 기금으로 스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방대하다.

월수입 108분의1 모아 복지사업

현재 700만원 정도 모인 기금이 1천만원을 돌파하면 장학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미안파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미안파 스님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 사업의 첫 발을 댄다. 기금이 더 쌓이면 노인복지, 어린이 청소년 교육 포교 등에 매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따로 부지를 매입해 108분의1 나누기 센터를 만들고 싶은 구상도 가지고 있다.

매일 꾸준히 동참하고 있는 총무 유정자(43·문수행)씨는 "매달 일정액을 내는 것이 어렵지만, 부처님 일이고 내 일이라는 생각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지연 기자

2549 부처님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오신날 봉은사로 오세요
봉은사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주지 설담 원혜

청정공덕회장 명적 정창현

사부대중일동

봉은학림 선요(禪要) 강좌안내

선종수사찰이자 공부하는 도량 봉은사에서는 2004년까지 '육조대경 논강'과 대강백 통광 스님을 모시고 '봉은학림 선가귀경/선교결'을 통하여 선사상에 대한 강좌와 더불어 선종수사찰의 면모를 일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안거 기간 동안 선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는 어록 선요(禪要)를 강의함으로써 선종수사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2005년도 제3차 일요법회 '봉은학림 선요(禪要)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요 : 1) 기간 : 5월 29일 ~ 8월 14일 (총 12회)
- 2) 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12시
- 3) 과목 : 고흥화상 선요(禪要), 어록
- 4) 교재 : 선요
- 5) 강사 : 월호 스님(쌍계사 강주)

선요(禪要)란?

선요는 고흥화상이 설하신 내용을 시자 지정스님이 기록한 것으로 고려 말 이후 한국 선종의 필독서로 채택되어 현재 불교전문강원에서 도서와 절요, 서장 등과 함께 사지와 과목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봉은사 미륵대불